

장국영(張國榮)의 생애 서사와 대중적 기억의 구성

— 프로프와 그레마스의 서사 모형을 중심으로

정성아*

— 목 차 —

1. 서론
2. 장국영의 생애 서사와 대중적 기억의 형성
 - 1) 대중매체의 기록성과 생애사 연구의 필요성
 - 2) 장국영의 생애서사: 에피소드 재구성
 - 3) 홍콩 대중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장국영의 위치
3. 프로프와 그레마스의 서사 모형
 - 1) 서사 원형과 스토리텔링 이론
 - 2) 프로프의 31가지 기능 모델
 - 3) 그레마스의 6가지 행위자 모델
4. 장국영 생애 서사의 구조와 의미
 - 1) 프로프 기능 모델의 적용: 플롯 구조 분석
 - 2) 그레마스 행위자 모델의 적용: 캐릭터·주제 분석
 - 3) 자아실현의 서사로서 장국영: 능동성과 수동성의 교차
 - 4) 열린 결말과 대중적 기억의 지속적 재생산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시아 대중문화의 아이콘 장국영(張國榮, 1956-2003)의 생애서사를 블라디미르 프로프(Vladimir Propp)와 알기르다스 줄리앙 그레마스(Algirdas J. Greimas)의 서사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장국영의 생애에서 주요 에피소드를 재구성하고, 프로프의 31가지 기능 모델과 그레마스의 6가지 행위자 모델을 함께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그의 생애서사에 어떠한 보편적 서사 구조가 나타나는지를 살

* 국립창원대학교 교육혁신처 초빙교수

펴보고, 그러한 구조가 사후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장국영에 대한 초국가적·탈세대적 수용과 기억을 지속시키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장국영의 생애서사는 결핍, 시련, 극복으로 이어지는 원형적 서사 흐름을 보이지만, 마지막 결혼 기능(31° 기능)의 부재는 대중의 지속적인 재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결말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위자 모델 분석을 통해 드러난 중심 주제는 자유, 곧 어린 시절부터 억압되어 온 자아실현의 욕망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영화 속 배역을 매개로 형성되는 장국영의 열린 생애서사 구조가 서로 다른 수용자와 맥락 속에서 문화적 기억의 지속적인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자유'는 단순히 자아실현의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으며, 홍콩의 혼종적 문화 환경, 산업적 조건, 그리고 감정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다층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타 연구, 서사 이론, 그리고 동아시아 초국가적 대중문화 흐름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키워드 : 장국영, 생애서사, 프로프 그레마스, 대중적 기억, 초국가적 스타성, 홍콩 대중문화, 칸토팍, 문화적 기억

1. 서론

본 연구는 1980~90년대 아시아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던 장국영(張國榮, Leslie Cheung, 1956-2003)의 생애를 서사 분석(narrative analysis)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그가 사후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초국가적·탈세대적으로 수용되고 기억되는 현상을 서사 구조의 차원에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K-콘텐츠의 세계화와 함께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형성과 이동 경로를 재검토하려는 학술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이전 시기 아시아 대중문화의 선구적 사례로서 홍콩 대중문화와 칸토팍 스타 시스템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국내 연구는 스타의 생전 활동 자체보다 사후 팬덤, 디지털 추모, 기억의 공동체, 그리고 감정적 공감과 유대의 형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장국영은 이러한 논의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울프 한네르즈(Ulf Hannerz)는 초국가적 문화 흐름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사람, 상품, 정보,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이동하며 형성되는 문화적 연계의 과정으로 설명한다.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80년대 컬러TV의 확산과 1990년대 아날로그·디지털 매체 환경의 공존은 홍콩 대중문화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으로 유통·소비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 장국영을 비롯한 칸토팍 스타들은 영화, 음악, 텔레비전, 팬클럽 문화를 가로지르며 동아시아 차원의 초국가적 스타 시스템을 형성하였고, 이는 오늘날 한류 이전 아시아 대중문화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주목할 사실은 장국영이 단지 한 시대의 스타로 머무르지 않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기억된다는 사실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의 팬덤은 단순한 향수의 차원을 넘어 추모 의례,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적 기념 실천을 통해 현재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국영은 과거의 스타이자 현재의 문화기억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국영 현상은 한 개인 스타의 전기적 서사에 국한되지 않으며,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초국가적 순환, 팬덤의 기억 실천, 그리고 사후 스타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사례만 보더라도, 장국영은 사후에도 한국 대중문화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환되고 있다. 그의 기일인 4월 1일 전후에는 추모 기사와 특별 상영이 반복되어왔으며, 2026년에도 국내 극장에서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이 그의 기일에 맞추어 재개봉되었다. 또한, 장국영은 1990년대를 재현하는 국내 콘텐츠에서도 꾸준히 호출되어왔다. 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2026)에서는 장국영 음악이 반복적으로 호출되었고 〈응답하라 1994〉(2013)에서 장국영을 당대의 대중적 기억과 연결되는 문화적 표상으로 소환한 사례로 언급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향수의 대상을 넘어, 한국 대중의 집단 기억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문화적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장국영의 영화 텍스트, 홍콩 영화 산업, 팬덤의 형성

1) 이와부치 고이치,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2004, 32쪽.

과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2) 그러나 스타 장국영의 ‘생애’ 자체를 서사 분석의 방법론으로 접근하여, 그 생애 서사가 초국가적 수용과 기억의 지속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밝힌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대중문화사의 주요 인물에 대한 생애사 연구가 대중문화 역사 서술의 공백을 보완하는 데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이론의 서사 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블라디미르 프로프(Vladimir Propp)의 기능 모델(functional model)과 알기르다스 줄리앙 그레마스(Algirdas J. Greimas)의 행위자 모델(actantial model)을 이론적 분석 틀로 삼아 장국영의 생애서사가 어떠한 서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구조가 오늘날에도 사후 기억과 초국가적 문화 수용의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장국영 관련 인터뷰 기사, 회고서, 각종 대중매체 기록에 근거하며, 그의 생애 에피소드를 서사 단위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2. 장국영의 생애 서사와 대중적 기억의 형성

1) 대중매체의 기록성과 생애사 연구의 필요성

대중매체는 광범위한 지역에 동일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대중에게 공통된 기억, 곧 ‘대중적 기억(popular memory)’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

2) 오유정, 「후(後) 장국영 시대 팬덤의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함의」, 『중국학논총』 제60권, 2018, 131~153쪽; 김정은, 「한국의 홍콩 스타 수용과 팬덤의 문화적 함의」, 『한중언어문화연구』 제70권, 2023, 325~346쪽; 오유정 외, 「빅데이터 기반 장국영 한·중 팬덤 인식 비교」, 『중국어와문학』 제87권, 2025, 229~263쪽; 김승구, 「1990년 전후 한국 내 홍콩영화의 수용 양상」, 『한국학연구』 제62권, 2017, 95~136쪽.

나 대중매체를 통해 구성되는 기억은 선택된 장면과 이미지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특히 스타 연구에서는 유통되는 스타 이미지나 작품 속 인물이 실재로서의 스타를 대신하여 기억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생애사연구는 개인의 생애 경험을 통해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다. 특히 스타 연구의 맥락에서 생애사연구는 단순한 전기적 사실의 기록을 넘어, 스타의 스타성이 어떠한 생애 경험과 서사적 구조를 통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는 분석 틀이 될 수 있다.³⁾

다만, 실제 인물의 삶을 서사 구조로 읽어내는 작업에는 방법론적 전제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가 필요하다. 실제 생애는 허구 서사와 달리 작가의 의도에 의해 통일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며, 우연, 구조적 제약, 사회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폴 리코르(Paul Ricoeur)의 '서사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 개념은 본 연구의 방법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리코르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서사적이라고 주장하며, 삶의 경험은 사후적으로 서사 형식을 통해 의미화된다고 본다.⁴⁾

또한 로버트 맥키(Robert McKee)의 '스토리 벨류(story value)' 개념에 따르면, 대중에게 폭넓게 수용되는 서사에는 삶과 죽음, 자유와 속박과 같은 보편적 대립항이 내재되어 있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생애 에피소드를 서사 단위로 재구성하는 본 연구의 접근은, 실제 사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어떠한 서사적 패턴을 통해 대중에게 의미화·수용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임을 명확히 해둔다. 따라서 프로프와 그레마스의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대응(structural correspondence)이 아니라 해석적 전유(interpretive appropriation)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3) 손병우, 「대중문화와 생애사 연구의 문제설정」, 『언론과 사회』 제14권, 2006, 42~45쪽.

4) 양명수, 「리코르의 서사적 정체성 개념」,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28집, 2006, 1~28쪽.

5) 로버트 맥키, 『STORY: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 것인가』, 민음인, 2008, 59쪽.

기능의 배치가 어떠한 해석적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는 각 분석 절에서 명시적으로 밝힌다.

장국영의 경우 이미 그의 영화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으나, 생애 그 자체를 서사 텍스트로 읽어내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 장국영의 생애 서사: 에피소드 재구성

장국영의 생애 서사 분석은 장국영 관련 인터뷰 자료와 회고서⁶⁾를 토대로 그의 생애를 주요 에피소드 단위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개별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국영의 생애가 어떠한 사건과 전환점을 중심으로 서사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국영의 생애를 몇 개의 핵심 에피소드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서사 모형을 적용하여 그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분	시기	에피소드 내용
1	유년기	홍콩의 유복한 가정에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으나, 부모 이혼 후 외할머니 집에서 성장하며 심각한 정서적 결핍을 경험하였다.
2	유년기	죽은 아홉째 형과 생일이 같다는 이유로 형의 환생·분신으로 취급받으며, 가족 내에서 독자적 자아를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였다.
3	소년기(1968)	억압적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12세에 홍콩을 떠나 영국으로 유학을 결행하였다.
4	청년기(영국)	영국에서 인종차별이라는 외적 억압과, 부친이 강요한 섬유학 전공이라는 내적 억압을 동시에 경험하였다.
5	청년기(영국)	친척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바텐더로 일하며 주말마다 밴드를

6) 이상용 외, 『장국영, 천상에서 해피 투게더』, media2.0, 2003; 的灰, 『与他共度61世: 张国荣的电影生命』, 上海书店出版社, 2013.

구분	시기	에피소드 내용
		결성하여 노래를 부름으로써 음악적 자아를 발견하였다.
6	청년기(1976)	부친의 건강 악화를 계기로 홍콩으로 귀국하였다.
7	데뷔 전 (1977)	밴드 친구의 권유로 RTV 방송국 주최 가창 대회 참가 소식을 접하였다.
8	데뷔 전 (1977)	참가비가 없던 그에게 유모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대회 참가가 가능해졌다.
9	데뷔 전 (1977)	대회에서 'American Pie'를 불러 2위 입상, 홍콩 연예계에 첫 인상을 남겼다.
10	데뷔 초 (1977)	가요제를 계기로 평생의 매니저 진숙분(陳淑芬)과의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졌다.
11	데뷔(1979)	영화 〈홍루춘상춘(紅樓春上春)〉으로 공식 데뷔하였다. (본인은 1982년 〈열화청춘〉을 진정한 데뷔작으로 간주하였다.)
12	전성기 (1986~)	〈영웅본색〉·〈천녀유혼〉 등으로 아시아 아이돌 스타로 부상하였다.
13	전성기	스타덤과 동시에 홍콩 언론의 집중 조명과 사생활 침해를 경험하였다.
14	1차 은퇴 (1989~90)	'정상에 있을 때 물러나고 싶다'며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15	복귀 (1991~)	〈아비정전〉 출연 약속 이행을 위해 홍콩 연예계로 복귀하였다. 음악계 복귀 시에는 시상 불참을 선언하였다.
16	전성기 2기	천카이거(陳凱歌) 감독의 〈패왕별희〉에서 데이(蝶衣) 역을 연기하며 세계적 배우 반열에 올랐다.
17	2001년	인터뷰에서 '양성애자'임을 공개하며 성적 정체성을 공표하였다.
18	2003.4.1	우울증에 시달리다 홍콩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24층에서 투신, 생을 마감하였다.

〈표 1〉 장국영 생애 서사의 주요 에피소드

위의 에피소드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자아의 자유에 대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장국영이 추구해 온 '자유'는 단일한 개념이 아니다. 이는 가족 내 자아 부정과 영국 유학 시기의 이중 억압에서 비롯된 정체성 회복

의 욕망이며, 홍콩 연예 산업이 강제하는 이미지 관리와 언론의 감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산업적 맥락에서의 저항이고, 성적 정체성 공표로 나타나는 감정적·실존적 해방의 욕구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는 자아실현이라는 하나의 축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우며, 정체성, 산업, 감정의 세 층위가 교차하는 다층적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3) 홍콩 대중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장국영의 위치

장국영의 생애 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활동했던 홍콩 대중문화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홍콩은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자체적인 대중문화 산업이 빠르게 확대되던 시기였으며, 이 과정에서 홍콩 고유의 문화 정체성 또한 점차 뚜렷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칸토팍(Cantopop)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있다. 그 이전까지 홍콩의 대중음악은 영미권 팝의 영향을 강하게 받거나 상하이 계열의 만도팝(Mandopop)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광둥어 대중음악이 독자적인 장르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홍콩 대중문화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⁷⁾

이 시기 홍콩 대중문화는 단순히 지역 문화에 머무르지 않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1980년대에는 홍콩 영화 산업의 황금기와 맞물려 영화, 음악, 드라마가 복합적으로 소비되는 초국가적 문화 흐름이 형성되었다. 장국영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홍콩 대중문화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가수와 배우 활동을 병행하며 음악과 영화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며 홍콩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였다.

1970~80년대 홍콩 대중문화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

7) Yiu-Wai Chu, *Hong Kong Cantopop: A Concise History*,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7, p256.

는 홍콩이 중국 본토와 서구 세계의 접점에 놓여 있었다는 지정학적 특수성과, 영어·광둥어·만다린어가 함께 사용되던 언어적 혼종성이 자리하고 있었다.⁸⁾ 장국영은 영국 유학 경험을 통해 서구 문화를 접하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도, 광둥어 팝을 통해 아시아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홍콩 대중문화의 혼종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생애 경험은 홍콩이라는 공간이 지닌 문화적 혼종성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홍콩 반환은 홍콩 대중문화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본토로의 반환을 앞둔 1990년대 초부터 홍콩 영화와 음악 산업은 이미 이전과 같은 활력을 잃어가기 시작하였다.⁹⁾ 많은 홍콩 스타들이 캐나다와 미국 등지로 이주하였으며, 장국영이 1990년 은퇴 이후 캐나다로 떠난 일 또한 이러한 시대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홍콩 반환 전후의 사회적 불안정성이 장국영의 생애 서사 구조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1990년 1차 은퇴는 단순한 개인적 결단이 아니라, 홍콩 반환을 앞두고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던 시기의 이주 현상과 겹쳐 있다. 또한 <패왕별희>의 데이(蝶衣)가 정치적 격변 속에서 정체성을 잃고 비극적 결말에 이르는 인물로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장국영이 연기한 배역과 홍콩이라는 역사적 공간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홍콩의 혼종적 문화 환경과 역사적 전환은 장국영의 생애 서사가 단순한 개인 서사를 넘어 집단적 기억의 매개로 기능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8) 신현준, 「1970~80년대 홍콩 대중문화의 형성과 국제적 전파: '칸토파프 스타'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 제36권, 2006, 133-161쪽.

9) CHIU, S. W. K., & SHIN, K. V., The Fall of Hong Kong Movies: A Post-modern Investigative Report, Hong Kong Institute of Asia-Pacific Studies 225, 2013, p48.

3. 프로프와 그레마스의 서사 모형

1) 서사 원형과 스토리텔링 이론

서사(narrative)는 인간이 경험과 의미를 전달해 온 가장 오래된 소통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시학(Poetics)』에서 서사를 인물의 성격과 행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특히 사건의 배열과 전개를 중요한 요소로 이해하였다.¹⁰⁾ 이러한 점에서 서사를 이루는 핵심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경은 인물과 사건이 전개되는 조건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서사의 중심은 결국 인물과 사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서사학은 이러한 고전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야기 구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구조주의 서사학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 안에도 공통된 기본 구조가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말하는 서사 원형(narrative archetype)은 시대와 문화가 달라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의 기본 패턴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욕망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권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다.¹¹⁾

이러한 서사 원형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프로프의 기능 모델과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이다. 두 모형은 각각 서사의 플롯 차원과 인물 및 주제 차원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두 모형은 대중 문화 콘텐츠 분석에서도 서사의 공통된 구조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사례로는 류은영(2013)¹²⁾이 『신데렐라』서사 분석, 이영현(201

10)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문예출판사, 2002, 6쪽.

11) 최용호, 「서사학의 역사 서술을 위한 모델 구축」, 『불어불문학연구』제136권, 2023, 277-307쪽.

2)¹³⁾의 『인어공주』 비교분석, 김민정 외(2019)¹⁴⁾의 영화 『택시운전사』 서사 연구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프로프의 31가지 기능 모델

프로프는 러시아 민담 100편을 분석하여 서사의 구성 요소를 불변요소와 가변요소로 나누고, 불변요소로서 캐릭터 차원의 7가지 행위영역¹⁵⁾과 플롯 차원의 31가지 기능(function)을 제시하였다.¹⁶⁾ 프로프의 모델은 본래 민담이라는 특수한 장르의 반복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된 틀이다. 따라서 이를 실존 인물의 생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담 서사가 작가적 의도에 의해 구조화된 허구임에 비해 생애 서사는 사회적 맥락과 우연의 복합물이라는 차이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프로프 모델의 적용은 장국영의 생애 사건이 '실제로' 민담의 기능과 동일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대중적 기억 속에서 어떠한 서사적 패턴으로 의미화되어왔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해석적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을 밝혀둔다.

프로프는 두 가지 핵심 명제를 제시한다. 첫째, 기능의 수는 31가지로 한정된다. 둘째, 기능의 배열 순서는 일정하다. 개별 서사에 따라 특정 기능이 생략될 수는 있으나, 기능이 나타나는 순서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
- 12) 류은영, 「신데렐라 서사의 현대적 패러다임: 동화 『신데렐라』와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제42권, 2013, 267-291쪽.
 13) 이영현,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의 기호학적 비교분석 -프로프와 그레마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디지털영상학회지』 제9권, 2012, 55-70쪽.
 14) 조은진 외, 「시나리오 창작을 위한 내러티브 생성 기본 모형 제안-프로프의 기능 이론과 그레마스의 서사 이론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52권, 2019, 191-222쪽.
 15) 7가지 행위영역: 악한(villain), 증여자(donor), 원조자(helper), 공주(sought-for person & her father), 위임자(dispatcher), 주인공(hero), 가짜주인공(false hero).
 16) 블라디미르 프로프, 유영대 옮김, 『민담형태론』, 새문사, 2000.

1°부재(absence) → 2°금지(prohibition) → 3°위반(violation) → 4°탐색(enquête) → 5°정보입수(renseignement) → 6°기만(déception) → 7°순응(soumission) → 8°가해/결여(traitrise/manque) → 9°지시(mandement) → 10°결단(décision du héros) → 11°출발(départ) → 12°시련지정(assignment d'une épreuve) → 13°시련대처(affrontement d'une épreuve) → 14°원조자수용(réception de l'adjuvant) → 15°장소이동(transfert spatial) → 16°결투(combat) → 17°표지(marque) → 18°승리(victoire) → 19°결여해소(liquidation du manque) → 20°귀환(retour) → 21°추격(persécution) → 22°해방/구출(délivrance) → 23°비밀리도착/익명으로 도착(arrivé incognito) → 24°거짓주장(prétention mensonger) → 25°과제지정(assignment d'une tâche) → 26°성공(réussite) → 27°인지(reconnaissance) → 28°악한적반(révélation du traître) → 29°주인공현시(révélation du héros) → 30°처벌(punition) → 31°결혼(mariage)

<표 2> 프로프의 31가지 기능 모델

프로프의 기능 모델은 민담 분석에서 시작했지만, 이후 영화, 소설, 드라마 등 현대 대중 서사를 분석 도구로 활용되었다. 특히 주인공이 결핍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시련을 겪고 극복해 가는 플롯의 구조는 현대 대중 서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 모델을 장국영의 생애 에피소드에 적용하여, 그의 생애 플롯이 어떠한 보편적 서사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그레마스의 6가지 행위자 모델

그레마스는 프로프의 기능 목록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일반적인 서사 분석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는 프로프의 31가지 기능을 20가지로 재구성하고, 7가지 행위영역을 세 쌍의 대립 관계로 정리하여 6가지 행위자(actant)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구조의 미론(Sémantique structurale)』(1966)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¹⁷⁾

그레마스의 여섯 행위자는 세 가지 대립 축을 중심으로 구조화된다. 첫째, 주체와 대상의 축은 주체가 대상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둘

17)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그레마스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2020,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재인용

제, 발신자와 수신자의 축은 대상이 부여되고 귀속되는 관계를 보여준다. 셋째, 원조자와 적대자의 축은 주체의 욕망 실현을 돕거나 방해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세 축은 서사 속 인물과 기능의 배치를 설명할 뿐 아니라, 서사가 지닌 심층적 의미와 주제를 해석하는 데에도 중요한 틀이 된다. 특히 주체가 욕망하는 대상은 해당 서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중심 주제를 드러내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표 3〉 그레마스의 6가지 행위자 모델

프로프와 그레마스의 두 모형은 서로 다른 분석 차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프로프의 기능 모델이 서사의 플롯, 곧 사건의 시간적 전개 과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은 서사의 인물 관계와 주체의 방향을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 이에 본 연구는 두 모형을 함께 적용하여 장국영 생애 서사의 플롯 차원과 인물-주체 차원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4. 장국영 생애 서사의 구조와 의미

1) 프로프 기능 모델의 적용: 플롯 구조 분석

본 절에서는 장국영의 생애 에피소드에 프로프의 31가지 기능 모델을 적용하여, 그의 생애서사가 플롯 차원에서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 <표 1>에서 재구성한 생애 에피소드를 프로프의 기능 항목에 따라 다시 배열하여 아래 <표 4>로 제시하였다. 생략된 기능(4° 탐색, 5°정보입수, 24°거짓주장, 31°결혼)은 해당 행에 사선으로 표기하였다.

기능번호	기능 명	장국영 생애 서사 내용
1°	부재	부모 이혼으로 어릴 적부터 외할머니 집에서 성장; 정서적 결핍 상태
2°	금지	죽은 아홉째 형의 환생·분신으로 취급; 독자적 자아의 부정
3°	위반	12세에 홍콩을 떠나 영국으로 유학 감행
4°-5°	(생략)	—
6°	기만	부친이 강요한 섬유학 전공; 본인 의지와 무관한 선택
7°	순응	바에서 밴드를 결성, 주말마다 노래 부름으로 음악적 자아 탐색
8°	가해/결여	부친 건강 악화로 홍콩 귀국; 자신의 자유 의지가 아닌 귀환
9°	지시	RTV 가창 대회 참가를 친구로부터 권유받음
10°	결단	대회 참가를 스스로 결심
11°	출발	유모의 참가비 지원으로 대회 참가 실현
12°	시련지정	가창 대회에서의 경쟁
13°	시련대처	대회 2위 입상; 음악적 재능과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연예계 인정
14°	원조자수용	가요제를 계기로 평생 매니저 진숙분(陳淑芬)을 만남
15°	장소이동	1979년 영화 <홍루춘상춘> 으로 홍콩 연예계 공식 데뷔
16°	결투	<영웅본색> · <천녀유혼> 등 대작 출연; 아이돌 스타로서의 경쟁
17°	표지	스타덤과 동시에 홍콩 언론의 집중 조명 대상이 됨
18°	승리	<천녀유혼> 주제가 히트; 아시아 아이돌 스타로서 홍콩 영화 황금기 중심에 위치
19°	결여해소	홍콩 영화 전성기 감독들(오우삼, 왕가위 등)과 협업, 배우로 성장
20°	귀환	1990년 '정상에서 물러나겠다'며 돌연 은퇴 선언 후 캐나다 이주
21°	추격	은퇴 후에도 홍콩 영화계에서 끊임없이 출연 제의 도착
22°	해방/구출	<아비정전> 출연 약속 이행을 위해 홍콩 연예계로 복귀
23°	비밀리 도착	1992년 음악계 복귀; 그러나 '어떠한 시상도 받지 않겠다' 선언

기능번호	기능 명	장국영 생애 서사 내용
24°	(생략)	—
25°	과제지정	〈패왕별희〉 데이(蝶衣) 역 수행; 동성애적 이미지 연기를 위해 중국 영화 현장 진입
26°	성공	〈패왕별희〉로 세계적 배우 반열; 감독·스태프·경극 선생 모두에게 극찬
27°	인지	1995년 홍콩영화비평가협회 최고배우상, 홍콩영화제 최우수주제가상 수상
28°	약한적발	(홍콩 언론의 지속적 사생활 보도; 적대자로서의 언론 기능 지속)
29°	주인공현시	2001년 '양성애자' 발언으로 성적 정체성 공표; 억압된 자아의 공개적 현시
30°	처벌	우울증에 시달리다 2003년 4월 1일 호텔 24층 투신자살 (투신을 비극적 종결로 해석)
31°	(생략)	(열린 결말; 대중이 각자의 결론을 구성)

〈표 4〉 그레마스의 6가지 행위자 모델로 분석한 장국영 생애 서사

위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장국영의 생애 서사는 1°부제 단계에서 출발하여 30°처벌에 이르기까지, 4°탐색, 5°정보 입수, 24° 거짓 주장, 31°결혼의 네 기능이 생략되어 있으나, 나머지 기능들은 순서의 역전 없이 전개된다. 이는 프로프가 제시한 핵심 명제, 곧 기능의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과도 맞닿아 있다.

둘째, 생략된 기능들 역시 서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31°결혼 기능의 부재는 주목할 만하다. 프로프의 기능 모델에서 결혼은 주인공의 여정이 마무리되고 행복한 결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그러나 장국영의 생애 서사에서는 이러한 결말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의 생애 서사는 30°처벌(투신자살) 이후 서사가 결론이 없이 종료되어 서사의 결말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중의 해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열린 결말은 오늘날까지 장국영 생존설이나 목격설과 같은 담론이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장국영의 생애서사는 하나의 단선적인 여정이라기보다 복수의 출발

과 귀환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인다. 20°귀환(1차 은퇴) → 21°추격(출연 제의) → 22°해방(복귀)의 순환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그의 생애 서사가 단일한 플롯이 아니라 복합적인 플롯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국영의 생애 서사는 하나의 생애 기록에 그치지 않고, 반복과 변형이 함께 나타나는 서사 텍스트로 해석할 수 있다.

2) 그레마스 행위자 모델의 적용: 캐릭터 · 주제 분석

본 절에서는 장국영의 생애 서사를 그레마스의 6가지 행위자 모델에 적용하여,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인물 관계와 주제의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앞 절에서 살펴본 프로프의 기능 모델이 플롯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었다면, 여기서는 장국영의 생애 서사가 어떠한 욕망의 구조와 관계망 속에서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장국영의 생애 서사를 그레마스의 행위자 관계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행위자	내용	역할 설명
주체 (Sujet)	장국영	자아 자유를 욕망하며 서사를 이끄는 중심 행위자
대상 (Objet)	자유(경제성 회복·산업적 저항·감정적 해방의 복합적 욕망)	주체가 욕망하는 대상: 단순한 자아실현이 아니라 경제성·산업·감정의 세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다층적 개념으로 이해
발신자 (Destinateur)	영화 속 배역들	주체에게 대상(자유) 추구를 촉발·지시하는 기능(테이(蝶衣)나 아비(阿飛)는 그 내면을 공개적으로 가시화하는 매개로 기능)
수신자 (Destinataire)	대중(아시아·세계 팬)	주체가 표출한 자유를 스크린·음악을 통해 수용하는 주체
원조자(Adjuvant)	진숙분, 유모, 영화 감독들	주체의 자유 추구를 돕는 조력자들
적대자 (Opposant)	홍콩 언론, 가족의 억압	주체의 자유를 방해하고 속박하는 적대 세력

<표 5> 그레마스의 6가지 행위자 모델로 분석한 장국영 생애 서사

그레마스 모델을 적용한 결과, 장국영의 드러나는 중심 주제는 자유, 곧 자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주체인 장국영이 욕망하는 대상은 자유이며, 그것은 겉으로는 연예계에서의 성공과 인정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년기에 부정당한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과 맞닿아 있다. 주목할 점은 발신자의 위치에 영화 속 배역들이 놓인다는 점이다. 장국영이 영화 『패왕별희(霸王別姬)』에서 연기한 데이(蝶衣)와 『아비정전(阿飛正傳)』의 아비(阿飛) 등의 인물은 그의 실제 삶과 여러 면에서 겹쳐 보이며, 영화 서사를 통해 그의 내면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국영의 영화 속 인물들은 단순한 배역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생애 서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매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장국영이 남긴 영화 속 장면과 대사는 사후에 그의 삶과 연결되어 다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비정전』과 『이도공간(異度空間)』은 그의 죽음 이후 장국영의 생애와 연결되어 해석되면서, 영화 텍스트와 현실의 삶이 서로 맞물려 이해되는 방식으로 수용되어왔다. 이러한 해석은 영화 속 인물과 현실의 생애가 맞물려 이해되는 장국영 서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장국영의 생애 서사는 단순한 스타의 전기를 넘어, 영화와 현실의 삶이 서로 맞물리는 가운데 의미가 형성되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장국영의 생애가 대중에게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로 수용되어 온 양상을 보여준다.

3) 자아실현의 서사로서 장국영: 능동성과 수동성의 교차

앞선 두 모형의 분석을 종합하면, 장국영의 생애 서사는 ‘자아실현의 서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아실현은 고전 전래동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래동화의 주인공이 대체로 외적 시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원조자의 도움을 통해 행복에 이르는 존재로 그려진다면, 장국영의 경우에는 능동적 자아실현과 수동적 자아실현이 함께 나타난다.

능동적 자아실현의 사례로는 12세의 영국 유학 감행(3°위반), 가창 대회 참가 결심(10°결단), 정상에서의 1차 은퇴 선언(20°귀환), 『패왕별희』 데이 역을 위한 중국 영화 현장 진입(25°과제지정), 그리고 2001년 성(性)적 정체성 공표(29°주인공현시)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외부의 지시보다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선택이었다. 반면 수동적 자아실현의 사례로는 유모의 참가비 지원(11°출발), 진숙분과의 만남(14°원조자수용), 오우삼(吳宇森), 왕가위(王家衛), 천카이거(陳凱歌) 등 감독들의 발탁(19°결여해소), 그리고 홍콩 영화계의 지속적인 출연 제의(21°추격)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계기들은 주체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외부의 도움과 우연한 만남 속에서 촉발된 자아실현의 양상이다.

상기된 바와 같이 두 유형의 자아실현이 함께 나타난다는 점은 장국영의 생애 서사를 단순한 신데렐라 서사나 영웅 서사로만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의 생애 서사는 운명에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인물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대응해 가는 인물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장국영의 생애 서사가 아시아 여러 지역과 세대의 대중에게 폭넓게 수용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4) 열린 결말과 대중적 기억의 지속적 재생산

프로프 모델에서 31°결혼은 서사의 닫힌 결말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장국영 생애 서사에서는 이러한 결말 기능이 없다. 2003년 4월 1일 만우절에 이루어진 그의 죽음은 그 자체로 사실 여부에 대한 혼란과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죽음의 양상은 그의 생애 서사에 비현실적인 성격을 덧붙이며, 그 결말의 의미를 대중의 해석 속에 남겨 두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까지도 온·오프라인에서는 생존설, 목격설, 타살설 등 다양한 담론이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은 그 사실 여부의 판단이 아니라, 팬덤의 해석 실천과 사후 스타 이미지의 신화화·전설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적절하다. 검증되지 않은 루머를 논거로 활용하는 것은 논문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담론들은 열린 결말 구조가 대중의 능동적 해석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화적 현상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대중적 기억의 재생산은 기일인 4월 1일마다 반복되는 추모 기사와 극장 재개봉,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집단적 추모 의례, SNS를 통한 영화 장면의 공유와 재해석, 드라마 〈응답하라 1994〉나 〈언더커버 미쓰홍〉 등에서의 반복적 호출을 통해 구체화된다.

얀 아스만(Jan Assmann)의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기억은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와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는 실체이다.¹⁸⁾ 이러한 점에서 장국영에 대한 대중적 기억 또한 하나의 고정된 기억이라기보다, 계속해서 다시 해석되고 새롭게 구성되는 기억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생애 서사는 닫힌 텍스트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의 수용자들이 각자의 맥락 속에서 반복적으로 해석하고 다시 구성하는 텍스트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스타의 사후 초국가적·탈세대적 수용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장국영의 경우, 그의 작품이 지닌 예술적 성취만으로는 사후 20년 이상 지속되는 기억의 재생산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의 생애 서사는 보편적인 서사 구조를 지니는 동시에 열린 결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해석과 기억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18) Jan Assmann,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p.15-24.

5. 결론

본 연구는 장국영의 생애 서사에 프로프의 31가지 기능 모델과 그레마스의 6가지 행위자 모델을 적용하여, 그가 초국가적·탈세대적으로 수용되고 기억되는 현상을 서사 구조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국영의 생애 서사는 프로프의 기능 모델에서 확인되는 보편적 서사 구조를 보여준다. 단, 이러한 분석은 구조적 대응이 아니라 해석적 전유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만', '순응', '결투', '처벌' 등 은유적 확장을 요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각 분석에서 해석 근거를 명시하였다.

둘째, 그레마스의 행위자 모델 분석을 통해 장국영 생애 서사의 중심 주제가 '자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유는 정체성 회복, 산업적 저항, 감정적 해방이라는 세 층위가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다층적 개념으로, 단순한 자아실현 서사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닌다.

셋째, 장국영의 생애 서사는 31°결혼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열린 결말 구조를 지닌다. 이때 생존설·타살설 등의 담론은 사실 여부의 차원이 아니라 팬덤의 해석 실천과 사후 스타 신화화의 문화적 현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넷째, 장국영의 생애 서사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유통되었다는 점에서 고유한 성격을 지닌다. 그가 연기한 영화 속 인물들은 그의 실제 삶과 관련하여 다시 해석되며, 수용자는 영화 텍스트를 통해 스타의 생애를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장국영에 대한 강한 공감과 기억의 지속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애사연구와 서사 분석 방법론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스타 연구가 주로 작품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경향을 넘어 스타의 생애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초국가적 대중문화 수용의 문제를 산업, 경제, 미디어의 차원

뿐만 아니라 서사 구조의 차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장국영의 사례를 비교 연구의 맥락으로 확장하여, 동시대 혹은 이후 시대의 초국가적 스타나 한류 아이돌의 생애 서사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초국가적 스타가 형성되고 수용되는 서사적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K-pop 스타의 글로벌 수용 현상을 서사학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

參考文獻

-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그레마스 기호학 및 일반 의미론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 로버트 맥키, 『STORY: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 것인가』, 민음인, 2008.
- 블라디미르 프로프, 유영대 옮김, 『민담형태론』, 새문사, 2000.
-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문예출판사, 2002.
- 이상용 외, 『장국영, 천상에서 해피 투게더』, media2.0, 2003.
- 이와부치 고이치,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2004.
- 김승구, 「1990년 전후 한국 내 홍콩영화의 수용 양상」, 『한국학연구』 제62권, 2017.
- 김정은, 「한국의 홍콩 스타 수용과 팬덤의 문화적 함의」, 『한중언어문화연구』 제70권, 2023.
- 류은영, 「신데렐라 서사의 현대적 패러다임: 동화 『신데렐라』 와 영화 『미녀는 괴로워』 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제42권, 2013.
- 손병우, 「대중문화와 생애사 연구의 문제설정」, 『언론과 사회』 제14권, 2006.
- 신현준, 「1970~80년대 홍콩 대중문화의 형성과 국제적 전파: '칸토파프 스타'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 제36권, 2006.
- 양명수, 「리외르의 서사적 정체성 개념」,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28집, 2006.
- 오유정, 「후(後) 장국영 시대 팬덤의 정체성과 사회문화적함의」, 『중국학논총』 제60권, 2018.
- 오유정 외, 「빅데이터 기반 장국영 한·중 팬덤 인식 비교」, 『중국어와문학』 제 87권, 2025.
- 이영현,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의 기호학적 비교분석 -프로프와 그레마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디지털영상학회지』 제9권, 2012.
- 조은진 외, 「시나리오 창작을 위한 내러티브 생성 기본 모형 제안-프로프의 기능 이론과 그레마스의 서사 이론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52권, 2019.

- 최용호, 「서사학의 역사 서술을 위한 모델 구축」, 『불어불문학연구』 제136권, 2023.
- 的灰, 『与他共度61世: 张国荣的电影生命』, 上海书店出版社, 2013.
- Assmann, Jan, *Cultural Memory and Early Civi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 Chiu, S. W. K., & Shin, K. V., "The Fall of Hong Kong Movies: A Post-modern Investigative Report", *Hong Kong Institute of Asia-Pacific Studies*, 225, 2013.
- Chu, Yiu-Wai, *Hong Kong Cantopop: A Concise History*,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7.

Abstract

The Life Narrative of Leslie Cheung and the Construction of Popular Memory — Focusing on the Narrative Models of Propp and Greimas

Jung, Seong A

This study analyzes the life narrative of Leslie Cheung(張國榮, 1956–2003), an iconic figure of Asian popular culture, through the narrative models of Vladimir Propp and Algirdas J. Greimas. By reconstructing key episodes from Cheung's life and applying Propp's 31-function model alongside Greimas's six-actant model, this research examines the universal narrative structure embedded in his life story and explores how this structure has sustained transnational and transgenerational reception and memory of Cheung more than two decades after his death. The analysis reveals that Cheung's life narrative follows the archetypal trajectory of lack, ordeal, and overcoming, while the absence of the final marriage function (Function 31) produces an open-ended narrative that continually invites popular reinterpretation. The central theme identified through the actantial model is freedom — specifically, the desire for self-actualization suppressed since childhood. This study argues that the open structure of Cheung's life narrative, mediated through his film roles, enables ongoing reconstruction of cultural memory across different audiences and contexts. The findings contribute to star studies, narrative theory, and the understanding of transnational popular culture flows in East Asia.

Key words : Leslie Cheung, life narrative, narrative analysis, Propp, Greimas, popular memory, transnational stardom, Hong Kong popular culture, Cantopop, cultural memory

투 고 일 : 2026. 4. 10. / 심 사 일 : 2026. 4. 15. ~ 2026. 5. 15. / 게재확정일 : 2026. 5. 20.